

## 기장과 울진

도춘호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된다. 동물도 것을 떼면 자기를 낳아준 곳을 떠나 살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 랴...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미지의 곳을 찾아 떠나기도 한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남아입지출향관(男兒立志出鄉關)이라는 옛날 시도 있기는 하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은 공부만이 아니고 출세만은 아니다. 서민들은 직장을 찾아서, 생업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기도 한다. 역사를 보면 빈곤을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떠나기도 했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연해주의 고려인들처럼 1930년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난 타향살이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길로 나섰거나, 식량이 부족해서 어렵게 넘겼던 보릿고개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필자는 최근 부산 기장(機張)에서 잠시 살게 되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 자주 갔던 것을 기억하고, 늘상 바다의 넓은 품을 동경하고 있었지만, 직업으로 바다와 인연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기장에 있는 수산과학원에서 생분해되는 그물을 연구하는 초빙연구원으로 몇 년간 일하는 기회가 생겼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버려지는 폐그물이 환경 문제가 되므로 분해하는 그물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 경북 울진 출생. 전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전대한화학회 회장 (2010년), 전 한국폴리우레탄학회 회장 (2013. 4~2015. 3). 현 미국화학회 한국지회장, 현 한국화학산업연구회 회장. 울진 근남 행곡리 거주.

기장에서 처음 ‘대라리(大羅里)’에 살게 되었는데, 이름이 울진 연지리, ‘대나리’와 비슷한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살펴보니 ‘대변’항(大邊港)이 있고 ‘연화(蓮花)’리가 있고 사랑리에 ‘공수’(公脩)마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죽성리(竹城里)와 죽도(竹島)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변’은 다르게 보면 대변의 대를 대나무의 죽으로 보면 울진의 죽변과 같고(기장의 대변은 ‘큰’ 대를 써서 한문은 大邊으로 표기함), 죽성리, 죽도가 있어서 울진의 죽변이 연상된다. 연화리는 울진의 연지리, 공수리는 울진의 공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장과 울진의 지명(地名)이 비슷한 것은 이 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래가 비슷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원래 우리 이름으로 부르던 것을 한자를 빌려서 기록해서 한자의 의미는 다를지라도 발음이 비슷하므로 삼국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기장과 울진 주민들의 관계를 축구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뉴욕(New York)은 처음에 뉴암스텔담(New Amsterdam)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온 이주민들이 만하탄 포구에 살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다가 1664년 9월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영국의 지명을 따라서 새로운 York라는 뜻에서 New York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도시 뉴올린스(New Orleans)는 프랑스 이주민들이 프랑스의 올린스(Orleans) 지명을 사용해서 새로운 올린스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다. 이런 것을 보면, 기장과 울진은 아주 옛날 서로 왕래했거나 어느 한 곳에서 이주해 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울진 불영사의 천축산은 인도 천축국의 산을 닮았다 해서 불인 이름이라고 불영사 창건 유래에 나와 있는 것도 흥미롭다.

기장과 울진이 서로 비슷한 것을 알아보니 지명뿐만 아니라 두 곳 모두 미역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역도 많이 생산되고 해녀들이 수산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도 비슷하다. 미역이 많

이 나는 것은 두 곳의 지형과 해류 등의 흐름 등 미역 등 해조류가 자라는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다. 미역은 전복이 좋아하는 먹이이고 해조류는 어류의 산란 및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므로 기장과 울진은 모두 어장이 발달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게 되므로 이런 비슷한 환경을 찾아 나선 선조들은 유래가 비슷하다고 할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기장에도 있고 울진 북면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고 이중 절반을 울진과 고리에서 맡고 있으므로, 이 두 도시가 가장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전기는 우리 집안의 조명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전화기, 냉장고, 세탁기, 다리미 등 가전제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부터 공장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에너지를 기장과 울진에서 크게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한다는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고 또 기장과 울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장에 살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주민들이 기장군 복지 혜택이 좋다고 대부분 만족한다는 것이다. 울진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기장과 비슷하게, 복지가 좋다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믿는다. 기장에서 초등학교 시절의 친한 친구를 몇십 년만에 다시 만난 것도 객지살이를 조금이나마 잊게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도 생각하고, 고향도 생각하고, 넓은 바다도 생각하고... 기장에 살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고향과 비슷한 것을 찾아보게 되거나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고향을 그리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언젠가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